

만성위염환자의 상부내시경생검조직에 존재하는 *Helicobacter pylori*의 관찰

엄창섭, 전훈재*, 현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유전병연구소, *내과학교실, *소화기 연구소

Helicobacter pylori(이하 *H pylori*)는 위상피세포에 유착하거나 점액 속에 기생하면서 상부위장관의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으며 나선형과 구균형이 존재한다. 최근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질환의 병원체로서의 *H pylori*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화불량을 호소한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상부소화기내시경을 시행하고 위의 전정부 및 체부에서 조직생검을 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투과전자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표본을 제작하고, 투과전자현미경(Hitachi H-600)과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450)으로 관찰함으로써, 만성위염 환자의 위조직 내에 존재하는 *H pylori*의 형태를 살펴보고 위상피세포와의 구조적 상관성 및 위상피세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위상피세포와 접촉 혹은 유착 상태의 *H pylori*는 주로 위상피세포 사이의 연접복합체 주변에 밀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주 위상피세포 사이의 간극을 통하여 깊은 곳에서도 관찰되었으며, 간혹, 위상피세포의 세포질 속에서도 관찰되었다. 절편상 주로 계란 혹은 짧은 막대형으로 관찰되는 나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구균형도 상당수 관찰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상 *H pylori*는 세포의 경계부에 인접하여 존재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이 나선형이었다. 구균형은 위상피세포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관찰된 구균형의 대부분은 점막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위상피세포의 모양은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상에서는 연접복합체의 파괴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H pylori*가 많이 유착된 위상피세포에서는 미세음모가 세포 윗면의 중앙부에서 소실되어 세포의 가장자리에 밀집되어 관찰되었다. 접촉한 *H pylori*의 수가 많을수록 위상피세포의 표면구조는 손상되어 불규칙하였고, 세포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1) *H pylori* 중 나선형이 주로 위상피세포와 유착하여 위상피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2) 구균형은 점액 속에 존재하는 비활동성 형태이거나, (3) 구균형이 위상피세포와 접촉하면 나선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